

1) 3·1운동과 지식인 조직의 활성화

3·1운동 당시 순천지역에서도 몇 차례의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낙안과 별교장터에서는 유흥주(劉興柱)·김종주(金鍾胄), 동초면 신기리의 소매 안씨(安氏) 문중 성원들을 포함하여 20명이 넘는 인물들이 비교적 잘 계획된 일련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지는 못했으나 전국의 정세를 지역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족의식을 각성하게 하고 민족문제·사회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자극하는 계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의식은 곧바로 각종 단체의 결성을 통한 중장기적 민족주의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한국인의 신문 발간이 다시 허용되고 각종 단체들이 결성되어 문화적인 차원의 운동과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활동을 용인함으로써 민족운동의 급진화를 방지하려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화적 민족주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순천지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직은 청년회와 신문사의 지국이었다. 이 두 종류의 조직은 인적 구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1920년 240명의 회원으로 결성된 순천지방청년회는 서병규(徐丙奎) 및 김봉각(金奉瑑)을 비롯해 대지주 중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일부 면에서도 청년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황전면에서는 순천 두번째의 대지주인 박창서(朴彰緒)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별교청년회는 대지주 최재학(崔在鶴)과 채중현(蔡重鉉), 박사윤(朴士潤)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역시 대지주인 서화일(徐和日)은 고흥의 동강(東江)청년회를 주도했다.¹⁾

청년회에는 대지주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작과 자소작 정도의 경제를 영위하던 유교적 교육배경의 인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초대 순천지방청년회장으로 선출된 이길홍(李吉洪), 뛰어난 서예와 문장실력으로 알려진 이영민(李榮珉), 진도에서 3·1만세시위에 관여했다가 순천으로 이주하여 청년회 강론부장이 된 이창수(李昌洙) 등이 포함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순천지국은 이러한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1922년 동아일보가 순천분국을 설치했을 때 이창수가 분국장 겸 기자로 그리고 이영민이 기자로 참여했으며, 순천분국이 순천지국으로 개편되었을 때에는 이영민이 지국장이 되었다. 한편 서병규와 김병옥(金丙玉) 같은 재산가들도 순천분국 당시 기자로 참여하였다. 재산가로서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은 다소의 변화를 거쳤는데, 1925년에 이르기까지의 추이를 보면 직접 현장을 취재하기보다는 고문으로서 지국의 운영을 후원하는 위치로 점차 변하였다고 짐작된다. 1925년에는 김병옥과 대지주 정권현(鄭權鉉)이 고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²⁾

1920년대 초의 지방 지식인운동은 막연할 정도로 모호한 목표를 표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별교청년회장 최재학은 청년활동의 취지를 “시대풍조에 순응하여 원대한 행복을 증진코자 함”이라고 선언했다.³⁾ 이들의 활동은 온건하였으며 주로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한 목표가 무엇이었느냐에 관계없이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과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극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1) 『동아일보』 1920. 9. 1 · 1921. 4. 22 · 1922. 1. 29 · 1922. 5. 2 · 1922. 5. 23 · 1922. 6. 14.

2) 『동아일보』 1922. 10. 25 · 1925. 11. 17.

3) 『동아일보』 1922. 1. 29.

